

문헌분류와 과학분류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해

최영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책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자면 책분류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책을 그 내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해놓아야 독자들이 요구하는 책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책을 분류하는것은 과학적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사업인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279페이지)

도서관은 국내외의 귀중한 문헌재부들을 수집, 보관하고 사회적인 공동리용을 조직하는 정보자료기지, 보급기지이다.

도서관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문헌들을 많이 수집하는것과 함께 리용자들이 그것을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정확히 분류해놓아야 한다.

문헌분류사업은 도서관의 문헌정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도서관의 전반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분류란 대상을 순차적이며 고정적인 자리를 가지는 작은 부류로 련속적으로 나누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게 하는 구분을 말한다.

분류는 과학적인식활동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분류는 우선 사물현상들사이의 련관관계에 기초하여 주어진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여준다.

분류를 통하여 사물현상을 체계화하는 과정은 곧 과학적근거에 따라서 사물현상을 배열해놓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바로 사물현상에 대한 분류과정에 그것들사이의 련관관계가 밝혀지고 이에 기초하여 주어진 사물현상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이 해명되게 된다.

사람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를 통하여 생물집단들사이의 련관관계와 생물의 진화발전의 진면모를 과학적으로 밝혀낼수 있었다.

분류는 또한 종래의 과학적인식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과학연구과제를 옳바로 제시할수 있게 하여준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있는 사물현상들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물현상에 대한 종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는것을 밝혀낼수 있으며 분류체계에서의 다른 대상들과의 련관에 기초하여 옳바른 견해를 세워나갈수 있다.

화학자들은 화학원소들을 분류하는 과정에 원자번호가 커짐에 따라 원소들의 원자량이 일정한 합법칙성에 따라 증가한다는것을 발견하고 로듐, 세슘, 인듐과 같은 일부 원소들의 원자량에 대한 종래의 견해가 틀렸다는것을 찾아낸 다음 그것들을 새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은 21번, 31번, 32번 원소들이 있을것이라는것과 그것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그후 3년동안에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였다.

분류는 또한 주어진 사물현상을 체계정연하게 인식하고 개괄할수 있게 하여준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수많은 특성을 가지고있는 개별적사물현상들로 이루어진 일정한 부류의 사물현상들을 전체적으로 단번에 리해할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개별적대상들의 특성과 호상련관관계에 대한 리해를 통하여 그것들이 속한 전체로서의 사물현상을 파

악할수 있다. 사람은 사물현상들을 그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나누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어진 사물현상에 대하여 체계정연하게 인식하고 개괄할수 있다.

사물현상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려면 구분의 근거로 되는 징표 즉 분류기준이 있어야 한다.

분류대상을 문헌이라고 할 때 문헌이 가지고있는 징표는 문헌명, 저자명, 출판년도, 내용 등이다. 이 징표들은 문헌과 문헌을 구별하고 소개선전하는 징표로 될수 있다.

이러한 징표들을 구분근거로 하여 문헌들을 갈라놓는것을 일반적으로 문헌분류라고 한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실천에서는 문헌이 가지고있는 많은 징표들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징표를 문헌의 내용으로 본다.

그것은 문헌이 가지고있는 징표들가운데서 저자명이라든가 출판사명, 출판년도가 같은 문헌들은 혹시 있을수 있지만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문헌은 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헌분류는 본질에 있어서 문헌을 그 내용에 따라 과학지식부문별로 갈라놓는것이라고 하는것이다. 문헌이 사회정치생활에서의 변화와 과학기술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과학분류는 문헌분류의 기초로 된다. 그것은 과학지식의 여러 부문들이 나뉘여지고 체계화되며 그에 기초하여 문헌분류체계가 이루어지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과학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문헌분류를 위한 나눔갈래들의 명칭과 배열순서가 규정되며 그것이 하나로 종합되어 문헌분류체계가 이루어지기때문이다.

과학분류에서 변화발전이 이루어지면 문헌분류체계에서도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헌분류는 과학분류와 다른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과학분류에 비한 문헌분류의 차이는 첫째로,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것이다.

분류대상의 견지에서 보면 문헌분류에서는 과학적내용을 수록한 문헌을 분류대상으로 하지만 과학분류에서는 과학자체를 분류대상으로 한다.

한편 분류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문헌분류가 요구되는 문헌을 쉽게 찾기 위한것이라면 과학분류는 과학부문을 분류하기 위한것이다.

분류의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다른데로부터 문헌분류가 도서관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에게 보다 풍부한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데 이바지한다면 과학분류는 사물현상의 본질과 발전법칙을 해명하는데 이바지한다.

과학분류에 비한 문헌분류의 차이는 둘째로, 분류체계가 서로 다르다는것이다.

우선 문헌분류체계는 과학분류체계에 비하여 단순하고 직선적이다.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은 끝없이 다양하며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따라서 그것을 반영한 과학도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그것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교차되어있다.

그러므로 과학분류체계에서는 어느 한 개별과학이 다른 여러개의 개별과학과 련관되어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분류항목을 여러곳에 설정하게 된다.

물론 과학분류에서는 그 대상이 개념이기때문에 분류항목을 여러곳에 설정하고 하나의 개별과학을 여러곳에서 분류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헌분류에서는 분류대상이 문헌이라는 물리적인 대상이며 분류기호에 따라 일정한 장소의 일정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문헌에 여러개의 분류기호를 달아줄수 없으며 역시 하나의 문헌을 여기저기에 배열할수도 없다. 따라서 문헌분류에서는 하나의 분류갈래가 다른 분류갈래와 맺는 다양한 련관중에서 주되는 련관관계 하나만을 선택하여 기본분류기호로 설정하고 그밖의 련관에 대

해서는 필요에 따라 반복반영기호로 처리한다. 다시말하여 문헌의 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분류를 하고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분류를 한다.

반복분류는 하나의 문헌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보게 하기 위하여 기본분류를 한 분류항목이외의 다른 분류항목들에 다시 더 분류하는것을 말한다.

방사선방어에 대한 문헌은 핵동력공학의 《방사선으로부터의 방어》에 기본분류를 하고 핵물리학과 환경공학의 해당 부문에 반복반영을 하며 필요에 따라 방사화학이나 의학방사선학의 해당 부문에도 반영할수 있다.

문헌분류체계에서는 매 문헌에 오직 하나의 기본분류기호만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모든 문헌들은 분류체계에서 분류기호에 의하여 배열위치가 결정된다.

또한 문헌분류에서는 과학분류와는 달리 과학지식부문별구분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과학분류에서는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개별과학들간의 호상연관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매개 과학과 그 분과들을 철저하게 논리적체계에 따라 부문별로 갈라놓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과학지식부문별구분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절대로 있을수 없다.

그러나 문헌분류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서로 다른 과학부문에 속하는 문헌들을 어느 한 류문에 집중시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군사과학부문의 문헌들이다.

이 류문에서는 작전, 전법, 령군술, 병역제도 등 고유한 의미에서의 군사학, 군사예술에 관한 문헌뿐아니라 군사측지학, 군사지형학, 군사촬영학, 군사의학, 군법, 각종 무기생산을 위한 공업기술에 관한 문헌들을 분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군사와 관련한 문헌이라면 측지학, 지형학, 촬영학, 의학, 법학, 공업기술 등 학문에 관계없이 군사과학류문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과학지식부문별구분원칙에는 벗어나는것으로 되지만 실천적견지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것으로 된다.

군사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와 함께 사회생활령역의 중요한 분야를 이루고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과학분야들이 리용되고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서로 다른 과학부문이라고 하여도 하나의 류문에 집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문헌분류에서는 과학분류와는 달리 몇개의 과학지식분야들이 하나의 류문에 통합되기도 한다.

과학분류에서는 사물현상을 반영한 과학지식분야들을 있는 그대로 가르기때문에 개별과학 그자체가 그 분야들의 명칭으로 되며 그것이 곧 류문, 강문, 목문, 세목문들의 명칭으로도 된다.

그러나 문헌분류에서는 문헌을 배열하고 찾기 위한 분류기호를 사용하는데 과학지식의 분야가 대단히 많고 다양한데 비하여 그것을 표시하는 분류기호가 제한되어있기때문에 호상 린접되어있으면서 그 량이 많지 않은 몇개의 부문을 병렬로 묶어서 준위를 설정한다.

례: 81 과학, 교육, 출판보도사업, 군중문화사업, 도서관사업

376. 5 폭발물공업, 성냥공업

382. 5 추공세척, 추공고정, 추공완성

719. 145 각종 용품, 기물

719. 925 려행, 려행기

또한 문헌분류에서는 내용을 떠난 형식적인 구분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매개 과학과 그 분과들은 자기의 고유한 연구대상과 과업들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매개 과학은 다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를 이룬다. 개별과학들중에는 호상 침투되고 교차되는 관계에 있는것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개 과학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과학분야를 이룬다. 그러므로 과학분류에서는 모든 과학 또는 대다수 과학들을 한곳에 분류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문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하나의 과학지식부문만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내용을 수록한것도 적지 않다. 《백과사전》, 《조선중앙년감》, 《조선문헌목록》 등을 들 수 있다.

이 문헌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치는 내용들을 수록하고있기때문에 어느 한 개별과학부문에 분류할수 없다. 이로부터 문헌분류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문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종합성문헌》이라는 류문을 따로 설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헌분류는 과학분류에 의존하면서도 도서관실천으로부터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헌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문헌분류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분류의 정확도를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다.